

새만금 - ‘물의 도시, 세계 명품 복합도시의 꿈을 품다

- 새만금종합실천계획확정, ‘한국의베네치아, 한국의암스테르담을 대역사의미래로 -



‘한국의 베네치아, 한국의 암스테르담’ 이것이 새만금 대역사(大役事)의 미래가 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 사회를 술한 논란과 갈등에 빠뜨리고, 2차려 공사 중단 등의 모진 풍파를 겪은 새만금이 드디어 산업과관광·환경중심의세계적명품복합도시로건설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제3차새만금위원회를 열고『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법정·정책 계획으로 향후새만금개발의목표및개발방향등에관한‘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새만금을 ‘물의 도시, 명품 복합 도시’로개발하겠다는그랜드마스터플랜이라고할수있다.

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컨셉을도입한 이번 종합실천계획에서는개발방향을기존 농지개발위주에서다목적복합용지개발위주로 전환하고, 새만금을 ▲농업 용지, ▲FDI(외국 투자)업(무)산업 용지, ▲관광·레저 용지, ▲국제업무용지, ▲과학·연구용지, ▲

신재생에너지 용지, ▲도시 용지, ▲생태·환경용지등8개용지로구분해개발하기로 하였다.

세계적 명품 복합도시로 건설

이번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명품복합도시란8개용지가운데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레저, 국제업무 용지 등 3개 용지를 하나로 묶어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으로 만든다는것이핵심이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투자가치를높일수있도록새만금의중심지역 6,730ha(새만금전체의23.8%)를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이탈리아의 베니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수변 도시를 참고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고 세계적 경쟁력과고부가가치 창출을이루어낼 계획이다.

명품복합도시세계적수변도시·글로벌국제도시·녹색성장시범도시·인간중

심도시등4대도시조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정부는이를위해한국적전통과첨단 도시형태등을형상화한3개의디자인안을 마련했다.

첫 번째 디자인은 Sha-Ring CITY(방사형 구조)로, 중앙부 원(ring)을 중심으로 내부는친수공간을확보하고외부는3개의핵심 기능(좌측-FD산업, 위-국제 업무, 아래-레저 휴양)으로 배치(share)했다. 원의 중앙부는 호수를 조성해 전통 백자, 정화수의 이미지를구현하며3개도시는각각고유의 중심 기능을 가지면서 원을 축으로 조화롭게발전해나가는모형이다.

두 번째 디자인은 Full Moon CITY(보름달 구조)로, Sha-Ring CITY와는정반대로 원 내부가주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외부는 친수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원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수로를 두고 좌측은 중공업단지, 우측은 경공업·생태·주거및 상업 지역으로 배치했으며, 남부 지역을 레저·관광 도시로 계획했다. 초승달이 점차 단계적

으로 성장해 보름달로 변해가는 것처럼 외곽은보름달, 내부는전통창호문양을재현하면서우리나라가자랑하는반도체웨이퍼를형상화하고있다.

세번짜디자인은Delta CITY(삼각주구조)로, 두도시와는달리 기존 해저 지형을고려해 낮은 수심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에서육지로향하는발전축을통해도시가삼각주형태로성장하고수면위에떠있는섬의군락을형성하는도시구조이다.

삼각주를 표현하는 중심부에 국제 업무 기능을 배치하고 좌우 블록별로 FD산업용지가들어설예정이다. 이도시는각블록별로 중·경공업, 주거와업무지역을계획함에따라독립적으로성장발전시킬수있는것이특징이다.

5대 선도 사업 우선 추진

정부는 새만금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발 동력 확보 및 투자·관광 활성화를 위해 5대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 추진하기로 하였다. 명품복합도시 및 새만금 산업단지개발은 하반기 중 명품복합도시 디자인을 확정하고 국토부와 문화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 사업 체계를 구축, 투자 유치와 조기 매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합도시 개발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부안측 방조제 인근부지(100ha) 게이트웨이(Gate Way) 프로젝트가 우선 착수된다. 연내 매립이 착수돼 2010년 방조제 개통 이후 증가할 관광객 수요의 기본편익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조제 및 대기능부지 명소화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다. 3호 방조제(신시·야미도, 200ha) 인근에 방조제 준공 조형물과 랜드마크 타워 등 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바다 측 조망이 불가능했던 1호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도 내년 말까지 완료된다. 방조제 명소화와 연

계해 새만금 지역과 인근 고군산군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8.77km)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립 토 조달 사업을 위해 서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 지정된 골재 채취 단지를 활용하여 시급히 필요한 매립 토를 우선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군산항 준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매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외해역 및 군산항 등 주변 지역 매립 토 부존량 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해 중장기 매립 토 조달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방수제 조기 착공은 농업용지 8,750ha 구간의 56km를 오는 2011년까지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농업용지 방수제 우선 시행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예상되는 하류 지역 지형 변화 등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토지 용도별 주관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저탄소·녹색기법의 청정 새만금

정부는 물의 도시로서 새만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수질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업용수 수준인 현행 수질 목표를 적극적인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2조 4,550억원을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상류와 담수호, 해양 수질 대책 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녹색 개발 기법이 전면 도입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요인인 활동량, 에너지 소비단위 등을 감축시키기 위한 도시 설계와 배치 기법이 적용된다. 녹지 배치 등 다양한 도시 설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도시 열섬 효과 예방, 바람 통로 확보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저감형 녹색 교통 체계도 도입된다.

경전철과 궤도형 승용차 등 첨단 녹색 신교통 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새만금 내 주요 거점(공항, 항만, 철도, 고속터미널)과 각 용지 간 근거리 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전철역과 버스 터미널 등에서 일정 거리(600m) 보행 및 자전거 통행 거리 내에 상업지 및 고용 중심지를 형성하는 등 자동차 없이도 통행이 가능한 토지 개발 기법도 적용될 예정이다.

바이오 식물, 산림, 해조류 등을 통한 재생 에너지 생산 단지 조성 및 풍력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풍력 발전 단지 등 그린 에너지 실증 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미활용 에너지 활용 방안도 적극 강구되는데, 냉난방·급탕용 열수 등의 경우 섭씨 10도 미만의 저온이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도시 지역 내 생활·업무·생산 활동을 위해 투입된 에너지 중 회수되거나 이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도시 폐열 등을 에너지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성공의 관건은 '수질'

새만금 종합 실천 계획이 제시한 명품 복합 도시는 수변 공간 확보, 생태적 개발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 그동안 새만금이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조기 개발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확정한 점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이번 발표안은 새만금을 동북아 녹색 성장의 중심 기지이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성장 엔진으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질 문제는 새만금 종합 실천 계획 안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과제이다. 더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농업용수 수준인 수질을 물놀이와 수상 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달성하려면 엄청난 액수

Sha-Ring CITY



Full Moon CITY



Delta CITY



의예산이 필요하다. 새만금명품도시가 아무리 세계적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경제적 콘텐츠가 없으면 세계 도시로서의 경쟁력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새만금 명품도시에 동북아 개발은행, 국제 선물거래소, 세계적 교육·병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그래서 중요하다.

막대한 수질 개선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지도 는 수질 확보에 투입되는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부 주요 부처 공동 참여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 각 주요 부처(국토부, 문광부, 환경부, 지경부)를 사업의 주체로 참여시킨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담수화와 만경·동진강, 비점오염원 등 모든 수질 문제를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직접 담당, 해결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수월성을 한결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처별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견해 충돌의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사전 조율을 통해 도시의 기능과 배치 구상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짓고 하루빨리 착공이 이

루어져야 한다.

실천 중심의 지원책 마련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현실화하는 데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실천이 절대적 관건이다. 역대 정부마다 새만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개발 계획에 있어 공기를 늦추는 바람에 국고 낭비의 규모가 커지는 등 국가적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파노라마와 같은 현장에 국내의 자본이 넘쳐나는 황금의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명품 복합도시 조성의 경우 새만금 전체 개발의 판도를 바꿀 때 머드급 개발 사업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제시한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관건은 해외 자본을 어떻게 유치해 광활한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를 채워나갈지 여부다. 총면적 6,730ha에 달하는 명품 복합도시의 대부분 민간 자본으로 개발돼야 하는 것은 물론 부지 조성 후 기능에 적합한 콘텐츠를 채우는 것도 명품 복합도시 조성의 핵심 사안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으로

새만금은 1999년 첫 삽을 뜬 후 18년에 걸

쳐기반공사를 시행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의 달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새만금을 탄탄하게 올려놓은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종합계획만으로는 새만금을 명품으로 완성시킬 수 없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은 세계적 명품 복합도시로서의 비전과 더불어 많은 과제를 남겼다. 정부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한 만큼 그에 걸맞은 투자와 노력을 결집하여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속도감 있는 실행력, 그리고 국민적 성원이라는 3박자가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명품 새만금’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새만금의 잠재력은 실로 막대하다. 그리고 이 무한한 잠재력을 엔진으로 새만금은 명품도시로의 항해를 시작했다. 세계적 명품도시에 걸맞은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양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기획공보팀장